

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 온실가스 저감 나서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마련·올해 한우부터 시범인증 시범사업 참여 희망농가... 내달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2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해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회 이상의 농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축산농가 유통업체,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

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증진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해썬(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

(IPCC)에서 정하는 자책(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직접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된다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CO2q)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되어 약 8.9%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대항매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 인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연맹 김지현 팀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저탄소 한우가 생산되면 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저탄소 인증제 참여는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향후 정부와 연계하여 많은 한우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김정옥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하여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축산현장에 탄소감축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록 기자

갯기름나물, 염증·가려움증에 효과

전주대 조병욱·연세대 박준수 교수팀, 공동연구 통해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식방풍 조제액은 식방풍으로 알려진 '갯기름나물'의 뿌리가 염증과 가려움증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전주대학교 조병욱 교수팀 연세대학교 박준수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갯기름나물은 한국·중국·일본 등



기 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가려움증 인자 발현을 막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 연구에서는 동물(생쥐)에 갯기름나물 뿌리 추출물을 1kg당 100mg과 200mg 비율로 1회씩 먹인 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변화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추출물 지에 분포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90% 이상 한 해 1238톤이 생산되고 있는 주로 봄철에 나물로 먹고, 뿌리의 경우 매우 적은 양만 한약재로 이용되고 대부분 폐기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앞으로 작용원리 등을 밝힌 뒤 기능성 식품과의약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아록 기자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앞으로 작용원리 등을 밝힌 뒤 기능성 식품과의약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올 3523억 신규보증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이성진)는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약 3,523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지난 3년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2020년 2,678억원, 2021년 2,757억원, 2022년 3,580억원 등 총 9,015억원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속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증지원을 늘리는 등 농어업 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올해 1월 신규 부임한 이성진 농신보 정읍센터장(사민)은 "올해도 지속되는 3%(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제발전과 농어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지난 3년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2020년 2,678억원, 2021년 2,757억원, 2022년 3,580억원 등 총 9,015억원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 슬값 또 오른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주류 배송트럭에서 배송관리자가 음식점에 주류를 전달하고 있다. 소주는 지난해 주정값과 병무경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병병 가격이 조정됐다. 맥주는 4월부터 세금이 오르고, 원부자재값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출고가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 농지은행관리원 '안착 성공'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기여

"고객중심 농지 플랫폼 구축, 유용한 농지정보 국민에 제공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상시조사 및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영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2022년2월 18일) 후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 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

를 생산해 농식품부에 제공했으며, 조사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살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유농지 및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 하고 있다.

1973년부터 약 50년간 운영됐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는데 기여하며,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에 비해 필지별로 농지 소유·이용 정보를 관리하게 되어 더 체계적이며 촘촘하게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사업비를 역대 최대(1,354,000여 원)로 집행하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인대형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매매와 임대방식을 다원화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 위한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다.

이병호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농지정보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2023년 교육생 모집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미래 농업의 혁신 동력인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3년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자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해당 교육과정은 농업기초·스마트팜(이론 및 실습), 농장현장인턴 실습, 비즈니스 플랜의 총 3개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총 6개월의 교육기간동안 700여 시간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을 처음으로 접하는 청년들도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수료하면 누구나 쉽게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론중심 심이 아닌 현장 실습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청년농부사관학교는 각 기수별 50명씩 2개 기수로 총 1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모집일정은 9기 교육생은 2월 1일~3월 17일, 10기 교육생은 2월 1일~5월 12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2월 말(9), 3월 말(10)까지 조기에 지원할 경우 1차 서류심사 면제의 혜택도 주어진다.

/임종은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올 한해 교육 개시

양봉산업의 이해·미래농업 전문가 양성 등 필두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박성우)은 22일부터 시작하는 '양봉산업의 이해', '미래농업 전문가 양성(농업로봇)' 과정을 필두로 올 한해 교육을 개시하며 187개 교육과정, 286회 교육

의 첫발을 내딛었다.

양봉산업의 이해과정은 양봉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생리·생태적 특성과 사육관리, 꿀벌을 위한 말벌 방

제와 약제 관리, 밀원수 조성방법 등 실무, 문제해결 중심의 교과목으로 구성했다.

또, 미래농업 전문가 양성(농업로봇) 과정은 농기구의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농업용 로봇 확산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농업용 로봇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업무 담당자의 미래농업 방향에 대한 인력과 실무능력 향상을 돕도록 설계했다.

/임종은 기자

전북은행, 'JBMY금고' 기본 금리 2.0%로 인상

JBMY금고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원)이 파강형 상품인 'JB MY금고' 기본금리를 연 1.0%에서 2.0%로 인상했다.

'JB MY금고' 상품은 한 계좌 안에서 여유자금을 별도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입출금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해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실명이 확인된 전 북은행 입출금통장(연계계좌)과 연결해 신규개설이 가능한 상품이다.

JB MY금고의 입금한도는 최고 1억 원이며 금고계좌에 보관된 금액은 조건 없이 하루만 보관해도 연 이율 2.0%를 받을 수 있다.

본 상품은 입출금계좌에 별도의 계좌를 연결해 보관하므로 보이스 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에 효과적인 요구불성 예금상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4년간 639건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불만이 210건으로 가장 높아

(사)한국여성소비자연맹 전북소비자 정보센터에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4년간(2019년~2023년 2월9일) 63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상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고수익 정보제공을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체결 후 소비자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금 투자정보 제공, 타 업체의 서비스 비용 환급 대

행까지 제시하며 추가 서비스 가입 요구 등,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2022년 1월~2023년 2월 9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중 계약금액 확인 가능 건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545만1,474원이며, 1,000만원 이상 고가계약도 25건(8.7%)이다. 주요 피해는 계약 체결 후 환급 거부 및 지체,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불만이 210건(3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 특성을 보면 50대가 118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방법은 온라인판매가 165건(50%), 전화 권유판매가 66건(20%)으로 비대면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종은 기자

예비창업자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장 지원

전북지식재산센터, IP 디딤돌 프로그램 참여자 내달 3일까지 모집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지부장 김일)는 특허청과 협력으로 지원하는 'IP활용 창업·성장지원' 일환으로 전북지역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형 창업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후속지원 사업으로 해외관리화(PCT출원), 신규 브랜드 개발, 소규모 제품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의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김일 지부장은 "전북지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식재산 기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수요생들이 성공적인 창업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IP(지식재산)창업준 교육의 올해 첫 기수인 제4기 교육생을 오는 3월 3일까지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예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북지식재산센터(063-252-93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형 창업으로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과정은 총 40시간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전략을 비롯해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설계 전략, 사업 계획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크라우드 펀딩 및 IP(지식재산)금융 등 맞춤형 지식재산 기반 혁신창업과정이다.

IP(지식재산)창업준 교육은 올해 총 4기 이상의 진행 계획으로 교육수료생은 아이디어 상담을 통해 고도화 및 권리화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